

# 휘날려라! 태극기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근대5종 메달리스트 전웅태  
나주 출신 배드민턴 안세영 출전  
26일부터 17일간 열전 돌입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단이 9일 결단식에서 결의를 다졌다. 광주 선수단도 이날 결단식에 참석해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24 파리 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2차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강선 한국선수단장이 참석해 파리올림픽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계 정상에 도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으로 막이 오른 결단식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개식사로 인사말을 전했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정정당당하게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 부상이나 안전 사고 없이 개인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 선수단 여러분의 선전과 건승을 기원하며 파리에서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강선 선수단장은 "우리 선수단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며 퍼펙트 플레이 정신으로 멋진 승부를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경기장 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모범적인 자세로 대회를 치러 스포츠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국민께 스포츠를 통한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단식에 참석한 국가대표 선수단은 대한민국의 개폐회식 단복인 무신사 스탠다드의 청색 '벨티드 슈트 셋업' 단복을 입고 올림픽홀을 푸르게 빛냈다. 벽청(碧靑) 색을 활용해 제작된 이번 대표팀 단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 결단식에서 참석자들이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복의 자켓 안감에는 청화 백자 도안이 새겨졌고, 벨트는 전통 관복에서 허리에 두르던 각대를 재해석해 만들었다.

이날 광주 선수단도 결단식에 참석해 올림픽을 향한 결의를 다짐했다.

광주에서는 대한민국 근대5종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전웅태(광주시청)와 펜싱 강영마·김재원(이상 광주서구청), 유도 이혜경(광주교통

공사),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더월) 등 5명의 선수가 4개 종목에 참가한다.

이날 광주시체육회 전갑수 회장은 광주를 대표해 올림픽에 나서는 5명의 선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전 회장은 "대한민국과 광주를 대표해 출전하는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감동을 선사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현지의 무더위를 슬기롭게 대처해 최선의 기량을 펼치고 건강하게

귀국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전남 선수단에서는 근대5종 서창원(국군체육부대), 양궁 남수현(순천시청), 배드민턴 정나은(화순군청), 펜싱 최세빈(전남도청), 복싱 임예지(화순군청) 등 5명이 파리행에 나선다.

또 나주 출신 배드민턴 안세영(삼성생명), 신안 출신 사격 이보나(부산시청), 여수 출신 수영 김민섭(독도스포츠단) 등 전남 출신 선수들도 올림픽

에 출전한다.

한편 2024 파리올림픽은 오는 26일 개막해 8월 11일까지 17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며 32개 종목 206개국 1만500여명이 참가한다.

한국은 22개 종목 262명(선수 144명·임원 11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5개 이상, 종합순위 15위 목표에 도전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부활 노리는 한국 유도, 12년 만의 금맥 캔다

2024 파리 올림픽 주목 이 종목

유도

차세대 간판급 선수들 폭풍 성장  
39년만에 최중량급 우승 김민중  
독립운동가 허석 5대손 허미미  
최고 금 3 목표...자존심 회복 별러

한국 유도 대표팀은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을 마친 뒤 위기를 겪었다.

남자 100kg 이상급 김성민, 남자 100kg급 조구함, 남자 73kg급 안창립 등 체급별 간판선수들이 줄줄이 은퇴했기 때문이다.

한국 유도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노골드' 수모를 겪었고, 주축 선수들의 은퇴로 위기가 깊어졌다.

한국 유도는 2024 파리 올림픽의 전초전 격인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역대 가장 저조한 성적(금 1개, 은 2개, 동 5개)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유도는 결과에 개의치 않았다. 당장의 성적보다 차세대 간판급 선수들이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세대교체는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남자 81kg급 이준환(용인대), 남자 100kg 이상급 김민중(양평군청), 여자 57kg급 허미미(경북체육회) 등 새 얼굴들이 국제대회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김민중과 허미미는 지난 5월에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단번에 유력한 파리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떠올랐다.

세대교체를 마무리한 한국 유도는 파리 올림픽을 통해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황희태(남자), 김미정(여자) 감독이 이끄는 유도 대표팀은 파리 올림픽 목표를 최소 금메달 1개, 최대 2~3개 수확으로 잡았다.

파리 올림픽 유도엔 남녀 개인전 7개씩 총 14개 체급과 혼성단체전 1개를 포함해 금메달 15개가 걸렸다.

한국은 남자 60kg급 김원진(양평군청), 남자 66kg급 안바울(남양주시청), 남자 81kg급 이준환, 남



13일 오전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필승관에서 열린 2024 파리하계올림픽 유도 대표팀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민중(왼쪽)과 허미미가 단체사진 촬영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 90kg급 한주엽(하이원), 남자 100kg 이상급 김민중, 여자 48kg급 이혜경(광주교통공사), 여자 52kg급 정예린(인천시청), 여자 57kg급 허미미, 여자 63kg급 김지수(경북체육회), 여자 78kg급 윤현지(안산시청), 여자 78kg 이상급 김하은(안산시청)이 출전한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남자 최중량급 김민중과 여자 57kg급 허미미다.

김민중은 태극마크를 단지 1년 만인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며 한국 유도계에 파란을 일으킨 선수다.

그는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경험 부족을 드러내며 16강에서 탈락했으나 이후 굵직한 국제대회마다 메달을 쓸어 담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1985년 조용철 현 대한유도회장 이후 39년 만에 남자 최중량급에서 금메달을 땀다.

해당 대회 여자 57kg급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한 허미미도 큰 기대를 받는다.

허미미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 선수로 뛰기 바란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펼치고 있다. 허미미는 독립운동가

허석(1857~1920) 선생의 5대손이기도 하다. 허미미는 남다른 체력과 힘을 바탕으로 세계 최정상급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선수의 메달 전망은 밝다. 김민중과 허미미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덕분에 파리 올림픽 시드를 유리하게 받는다.

김민중, 허미미 외에도 리우 올림픽과 도쿄 올림픽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안바울, 지난해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년 연속 동메달을 딴 이준환,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자인 김하은은 메달 획득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서도 선수를 파견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 70kg급 문성희가 북한 선수로는 유일하게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땀다. 한국은 해당 체급 출전권 획득에 실패해 남북대결은 펼쳐지지 않는다.

파리 올림픽 유도는 에펠탑 인근의 아래나 샹드 마르스에서 열리며 7월 27일(현지시간)부터 8월 3일까지 펼쳐진다.

/연합뉴스



### “부담감도 즐기면서 메달로 보답하겠다”

광주교통공사 유도 48kg급 이혜경

3월 생애 첫 그랜드슬램 금메달

“노력한 만큼 결과 따라 올 것”

유도 이혜경(-48kg·광주교통공사·사진)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의 활약을 다짐했다.

오는 27~28일 열리는 파리올림픽 유도 여자 48kg급 대회에 출전하는 이혜경은 “그동안 열심히 훈련한 것에 대한 보답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최선을 다해 대회에 임하겠다”는 포부다.

대회 출전을 앞두고 9일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대한민국선수단 결단식에 참가한 이혜경은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긴 한데 이런 마음까지도 즐기려고 하고 있다”고 대회에 나서는 소감을 밝혔다.

또 “경기마다 계속 승리를 이어나가 많은 선수들과 경기를 치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다”며 “노력하고 준비한만큼 그 결과가 꼭 따라와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꼭 감사한 분들에게 메달로 보답할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파리올림픽 유도 종목에서는 체급당 상위

17위까지 출전 자격이 주어졌다.

2022년 6월 24일부터 2024년 6월 23일 사이에 획득한 올림픽 랭킹 포인트를 대상으로 순위가 가려졌고, 이혜경은 각종 대회에서 쌓은 우수 포인트로 최종 랭킹 8위까지 올랐다.

일찌감치 이번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한 이혜경은 지난 3월 2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2024 국제유도연맹(IJF) 트빌리시 그랜드슬램 여자 48kg급 결승에서 프랑스의 로라 에스파디냐에 한판승을 거두며 생애 첫 그랜드슬램 금메달도 따냈다.

광주교통공사 신대철 감독은 이혜경에 대해 “정말 성실하고 착실한 선수다. 주변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라고 다들 말한다. 이번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랭킹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 팀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 해왔던 대로 한판 한판 최선을 다하고 오라’고 얘기해줬다”며 “우리 팀에 최초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나올 거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이혜경 선수가 운동했던 양이나 그동안 했던 노력을 하늘이 안다면 꼭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민중과 허미미는 지난 5월에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단번에 유력한 파리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떠올랐다.

세대교체를 마무리한 한국 유도는 파리 올림픽을 통해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황희태(남자), 김미정(여자) 감독이 이끄는 유도 대표팀은 파리 올림픽 목표를 최소 금메달 1개, 최대 2~3개 수확으로 잡았다.

파리 올림픽 유도엔 남녀 개인전 7개씩 총 14개 체급과 혼성단체전 1개를 포함해 금메달 15개가 걸렸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